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팀 आय회



2015년 10월 19일, 호스피스 봉사자간 친목 도모 및 환기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10월 19일

강원도 춘천 제이드 가든으로 आय회를 떠났다. 자원봉사자 31명과 직원 4명이 참여하여 가을 경치를 느끼며, 조별 사진 콘테스트 등 외부활동 및 프로그램으로 웃음을 주기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팀원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 지역사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015년 10월 28일, 11월 12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완화의료병동과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완화의료병동 두 곳을 협력병원으로 선정하였다. 지난 10월 28일과 11월 12일 각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간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는 지역 사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과의 원활한 전원 프로세스 및 교육, 진료, 관리 등의 부분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을 기원하였다.

▶ 전체 사별가족 모임

2015년 11월 5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및 가정에서 임종한 사별가족을 초대하여 11월 5일 전체 사별가족 모임을 개최하였다. 사별가족 65명과 교직원 및 봉사자, 관련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총 13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인 추모 예식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별 여정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과 추모공연을 가져 가족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였다. 이날 모임은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점심을 마친 오후 1시 경 가족 모두 귀가 하였다.



대구대학교 구 가정호스피스

▶ 첫 사별가족 나들이

2015년 9월 29일, 남편을 사별한 두 분을 모시고 경북 청도읍 화양 음성을 구경하고 드라이브 하며 답소의 시간을 가졌다.

▶ 추모, 사별가족 모임

2015년 11월 9일, 4분의 가족을 모시고 꽃 봉헌-초 봉헌-연도-미사-점심-바이올린연주 작은 음악회-망자에게 편지쓰기 및 낭독 프로그램으로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가족들이 고마워했다.



대전성모병원

▶ 호스피스팀 기관견학

10월 2일,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이 김찬영 안드레아 원목실장 신부님의 인솔로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 총 41명이 유성 갑동 쏬솔라따 수도원으로 기관견학(팀 피정)을 다

너왔다.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강의와 묵상, 면담 성사, 미사 등으로 이루어진 피정은 말기 암 환우를 돌보는 호스피스팀이 그동안의 소진된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질 높은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행사



8월22일~10월 25일.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에서는 지역주민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홍보행사를 시행하였다. 아산교구 한생명축제(8월22일), 반석동성당(9월6일), 산성동성당(9월13일), 대전교구 한생명축제(10월9일), 덕명동성당(10월 18일), 봉산동성당(10월25일)에서 6번에 걸쳐 홍보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720명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리플릿을 주며 개별적인 설명을 하였다.

▶ 호스피스병동 개소 10주년 기념 행사



10월 1일.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최초로 호스피스병동을

오픈하여 운영한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여 호스피스병동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호스피스병동과 임종실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내며 임종을 준비하고 떠난 복된 선종자들의 수많은 감동적 이야기들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며 돌봄을 한 가족들과 이를 함께 겪었던 호스피스팀원들이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기념행사 날 총

300명의 내, 외부인들이 기념식에 함께 하셨다.

부산성모병원

▶ 호스피스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

인근지역 성당(수영, 망미, 남천)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호스피스 인식 확산과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에 대해 알리고, 리플릿과 양말을 드렸다.

▶ 2015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행사

① 7권역 연합캠페인

10월 15일(목)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7권역 연합캠페인이 부산보훈병원에서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하여 팀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새로 꾸며진 병동을 둘러보았다.

② 2015년 사별가족 만남의 날(10월 27일)

사별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삶의 회복을 돕고자 준비한 이 모임에 가족 49명과 팀원



들,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함께 하였다. 추모미사와 식사, 공연, 편지 쓰기 등을 통해 가족들에게 돌아가신 분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③ 제6회 사진전(10월 12일 ~ 27일)

본원 1층 로비와 10층 완화의료센터에서 사진 26점을 전시하였다. 환자와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을 통해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느끼며, 이벤트로서 관람객들에게 즉석사진을 제공하여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④ 국립암센터 완화의료주간 행사 및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 참석

10월 21일 국립암센터 주관 완화의료주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본원의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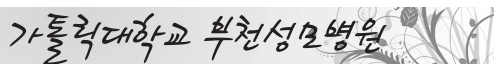
자원봉사자는 김영희(루시아), 김주찬(프란치스코), 김화일(소피아), 선정임(논나), 정인창(스테파노), 조순화(세레나)님 이었다. 수상을 통해 봉사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 제48차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증례 발표

10월 30일, 제48차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주최/본원 주관으로 증례발표가 있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부울경지회장인 김두식 교수님의 “최근 호스피스의 정책과 동향”이라는 특강과 증례발표를 통해 9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재 변화하는 호스피스의 제도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제5차 완화의료 간병도우미 교육 실시

10월 19일 ~ 21일, 본원에서는 7월 15일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완화의료 간병도우미제도를 위해 10월 19일 ~ 21일까지 요양보호사 11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후 3차에 걸쳐 52명이 실습하였고, 11월 2일부터 본원 완화의료센터에서는 완화의료 간병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였다. 많은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감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한다.



▶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2015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교육이 진행되었다. 지역 사회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호스피스 주제로 다양한 강제가 제공되었다. 이



번 교육은 약 80명의 일반인들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단순히 호스피스 교육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 호스피스팀 워크샵(경기도 시흥시 소재 인천교구 성바오로 피정의집)

2015.08.28.(금) ~ 08.29.(토) 매년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소진관리를 위하여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호스피스 워크샵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약 23명이 참여하였다. ‘쉽& Again’이라는 주제로 호스피스 돌봄을 통하여 만나고 헤어졌던 많은 환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점검하면서 본인의 상처와 좌절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성적 에너지의 원천을 재확인하며 재충전의 기회 갖도록 하였다.

▶ 호스피스팀 성지순례(충청북도 진천 소재 대전교구 배티성지)

2015년 9월 23일 호스피스팀의 팀웍과 신앙을 돈독히 하고자 배티성지를 방문하였다. 성지 방문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봉사자가 함께 하였다.



▶ 2권역 홍보캠페인

2015년 10월 14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환자 및 가족의 인식 제고와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매년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기준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을 지정하여 기념식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성모병원은 2권역 대표기관으로 본원 성요셉관 대강당에서 호스피스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행사 내용으로는 호스피스 기관 소개 및 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나 혈액종양내과 진중률 교수의 색소폰 연주가 함께 하였다. 김은정 음악치료사와 7인이 함께 하는 호스피스 음악회가 함께 개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혜경 연극인의 모노드라가 진행되었다.

▶ 사별가족 전체 모임



2015년 11월 6일 위령의 달을 맞이하여 사별가족 전체 모임을 진행하였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임종환자의 가족들이 초대되었으며 추모미사로 모임을 진행하였다. 초와 꽃 봉헌, 동영상 감상, 가족들의 편지, 간호사의 편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기쁨을 제공하였다.

▶ 자원봉사자 총회

2015년 11월 25일 1년 동안 호스피스 완화센터와 함께 한 약 30명의 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기 총회를 진행하였다. 2015년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신입 자원봉사자 소개, 회칙 검토, 신규 회장으로 최광순마리아 자매님이 선출되었고 동영상 감상과 식사로 마무리 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조직 체계 변경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으로 운영되었으나 2015년 11월 1일자로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로 변경되었다.

성가복지병원

▶ 개원 25주년 기념 감사장 수여식



7월23일 성가복지병원 25주년을 맞아 병원장님으로부터 10년 이상 봉사한 분들에게 감사장 수여가 있었는데 호스피스 봉사자 16명에게는 9월 월례교육<돌봄자들의 스트레스관리>후 강당에서 따로 있었다. 감사장을 받은 봉사자중 1990년 임종봉사로 시작해서 1991년 11월1일 호스피스병동이 개설되면서 시작한 봉사자도 계시며 23년~1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자들과 함께 했다. 9월25일에는 호스피스 김점옥 팀장이 제 39회 가톨릭 사회복지회 회장상도 받는 영광의 시간도 있었다.

▶ 호스피스봉사자 성지순례



가을 향기가 가득한 절두산 성지에서 미사와 기도, 묵상 등을 통해 회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10월2일 절두산성지를 순례하며 순교성인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 사별가족 만남의 날

위령성월인 11월 6일 최진옥 시몬신부님(예수고난회 소속)께서 집전 사별가족미사와 함께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 참석 해주신 26가족(32명)과 함께 먼저가신 고인이 평화로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비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미사 후 고인의 생전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사별의 아픔을 서로 나누는 위안의 시간이 되었다.

▶ 그 외

11월 25일 비가 오는 수요일 이벤트로 “병실극장”을 꾸며 -국제시장-을 상영 하였다.

영화장비와 팝콘포함 간식을 준비한 팀장님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즐겁게 영화를 감상한 후 환우들은 각자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 feedback을 주셨다. 12월 4일 호스피스 평가회를 통해 한해 봉사활동을 점검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김헬레나 팀장이 만장일치로 연임하기로 결정되어 또 수고해 주시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환자와 가족을 위한 티타임, 발맞사지, 음악요법, 웃음요법, 아로마요법, 환자나들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



2015년 9월10일(목)~11일(금)까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과 삶을 되돌아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평가하였다.

▶ 낮 호스피스

2015년 10월 14일 낮 호스피스를 실시하였다. 투병생활에 지쳐있는 환자와 가족을 센터로 초대하여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노래도 함께 부르

고 마음을 활짝 여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센터 트랙을 거닐며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사별가족 모임 및 추모미사

2015년 11월 13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모시고 사별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위령성월을 맞아 환자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분들을 모시고 센터에서 추모 미사를 봉헌 하였다.

▶ 자원봉사자 성지순례



가을이 무르익어 아름다운 계절의 한 중턱인 2015년 10월 23일 센터를 위해 수고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성지순례길에 나섰다. 배티성지를 방문하여 순교자들의 숭고한 열과 정신을 본받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성빈센트병원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5년 하계학술대회 최우수 구연 발표상 수상

7월 3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5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최근 2년간의 완화진정 실태를 분석, 발표한 논문 ‘성빈센트



병원 호스피스센터에서 완화진정의 사용'이 최우수 구연 발표상을 수상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소진예방 워크샵, 기관방문

8월 29일~9월 1일.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양질의 돌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소진예방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제주도 워크샵을 다녀왔다.



병동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의료진과 성직자가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을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품으며 더욱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팀원들이 돈독해 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제주 성이시돌 복지의원' 기관방문도 하였으며, 타 기관 견학을 통해 배움의 기회도 갖는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성지순례

10월 6일.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자원봉사자들이 전북 익산 천호산 품안에 자리잡은 '천호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미사와 순교자 묘역 참배를 통해 순교자의 얼을 기리고, 가을의 시작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변 산책도 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보냈다. 이 시간을 통해 환우분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2015년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3권역 캠페인

10월 13일.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맞이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3권역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병원 1층 대합

실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리플렛 제공을 통한 홍보 및 무료찾집을 운영하였으며, 2층 루이지홀에서는 3권역 기관협의체가 공동으로 준비한 재능기부를 통한 중창과 연주, 모노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201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10월 21일. 201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을 맞이하여 국립암센터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 누적시간 10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우수봉사자 시상을 하였으며, 본원 백민자(막달레나), 유창옥(마리오), 함정애(보나), 홍종실(엘리사벳) 자원봉사자가 수상을 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새단장

11월 9일.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이 환우와 가족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새롭게 단장을 하였다. 앞으로 새 보금자리에서 더욱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되겠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원 축복식

분산형으로 운영하던 호스피스완화의료unit을 병동형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11월 12일(목) 호스피스완화의료 센터를 개원하였고 19일(목)



염수정 추기경 집전으로 병동에서 센터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법인, 의료원 내, 외빈들과 본원 직원이 참석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원을 축복, 축하해 주셨다. 여의도성모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원으로 인해 가톨릭 중앙 의료원의 이념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 사별가족모임 개최

11월 17일(화) 사별가족모임을 통해 사별 이후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아픔, 슬픔을



나누고 다시 건강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희망하며 안중배 영성부원장 신부님이 집전하신 추모 미사로 시작하여 점심식사 이후 사별가족들과 봉사자들의 나눔 모임을 진행하였다. 미사 시작 전에 고인을 위한 꽃을 봉헌하였다. 나눔모임에서는 하모니카 연주와 노래로 정서적 위안을 얻고 사별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다른 가족들과의 친교, 그리고 투병 동안 함께 했던 봉사자들과의 시간을 통해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익산성모병원



익산성모병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서 노인환자들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추구하면서 종교적 의미와 영적 돌봄의 차원에서 호스피스 돌봄과 비 암성 말기질환자들의 죽음의 돌봄도 함께 하며 일련의 교육계획으로 직원과 봉사자들에게 호스피스교육을 하였고 호스피스 수료자들을 위한 심화교육도 함께 열었다.

▶ 직원호스피스교육

11/19일에 “호스피스에서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윤매옥 교수(한일 장신대학 간호학과장)가 직원을 위한 교육을 진행 하였다.

▶ 호스피스심화교육

11월 20일에 호스피스 교육생 중 43명이 “호스피스 운영실재”(이숙희수녀)와 “호스피스에서의 죽음(윤매옥 교수)” 주제로 강의를 듣고, 서로의 우애와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사별가족모임

11월 25일에는 사별가족 7가족이 초대되어 호스피스 봉사자 6명과 이숙희, 강엘리수녀가 함께 모임을 진행하였다. 1부: 미사 / 2부: 시작성가, 자유기도, 시낭송(시인 이인오), 촛불 봉헌, 위령기도, 끝 성가 / 3부: 다과, 나눔으로 그동안 사별 후에 아픔, 고통을 열어놓으면서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외동딸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고통보다 하느님 품안이 더 좋은 곳이니 빨리 하느님께 가시도록 기도했다며 흘리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여러 가족들이 사별은 떠나보내는 연습이고 새로운 생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작임을 확인하는 값진 시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 봉사자 연수

11월 26일에는 영등소라 성당에서 오전10~오후3시까지 봉사자 41명이 참석하여 강엘리, 고수진수녀가 함께 동반하여 오전 강의로 김기곤 사제의 “죽음을 위한 봉사”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오후엔 영상, 그룹 나눔,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블루베일(blue veil)의 시간”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강릉 갈바리 의원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환자,가족의 모습을 보며 죽음은 하나의 이별이자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선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였다.

천주의성모한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2015년 10월 2일. 광주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 광주·전남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참여



하여 리플렛 배포를 통한 통증교육, 포토타임, 모노드라마, 하모니테라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별가족 모임

2015년 11월 27일. '그리움도 행복이여라' 라는 주제로 사별가족모임이 진행되었다. 이별의 슬픔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따뜻함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시낭송, 마음풀이, 꽃바구니와 촛불봉헌을 통해 고인과의 추억을 되돌아보고, 슬픈 마음을 서로 위로하였다.



▶ 제50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교육이 2015년 11월 10일~11일 양일간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으로는 호스피스란 무엇인지, 말기 암환자들의 경험, 신체적 증상에 따른 간호, 영적 돌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50회 교육이 이루어졌다. 참여자들도 호스피스 활동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전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우수 자원봉사자 18명 수상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말기 암 환자 및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이 있었다.

본원의 자원봉사자는 18년간 꾸준히 봉사하시는 분이 약 55여명에 이르는데 2015년 10월 21일 본원에서는 18명이 수상하였으며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2015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세미나 개최

11월 19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가정호스피스 제도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국 여러 병원과 관련 기관의 종사자 분들 96명이 참석하시어 한국형 가정호스피스 모델 개발 강의를 시작으로 가정호스피스 운영의 실제와 가정호스피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제4회 이사회 개최

11월 19일 서울성모병원 별관 6층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회장, 부회장 2명, 이사 6명이 참석하여 2016년도 정기총회 및 기관대표자회의와 이사 선임 건에 대해 논의하였다.